

상례문화에 관한 연구

유 관 순

건양대학교 공의의상학과

A Study of Mourning Culture

Yoo, Kwan-Soon

Dept. of Costume Design, Konyang University
(2004. 9. 20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ourning Culture. In this study, methods such as field work, depth interviews and open-ended descriptions were employed to interpret their mourning cultu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is study classifies Mourning Culture by its filial piety, shroud, mourning garments and cremation. The death in the mourning have relation to filial piety. People began preparing their shroud after their 70th birthday anniversary. To keep prepared shroud naphthalene and leaf tobacco were placed inside. And to keep prepared shroud a paulownia tree box was used. The cloths of the shroud were mostly all Samba(大麻). The color was light color center upon the white color and 素色. Terms of the shroud were different in each region. The kind of the mourning garments were various. The Cognition of the cremation was considerably affirmative.

Key words : mourning culture(상례문화), filial piety(효도), shroud(수의), mourning garments(상복), cremation(화장)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선행연구

古代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인간의 죽음을 現世에 한정된 종말로 보지 않고 現世에서의 같은 생활을 來世에서 한다는 繼世思想을 믿어왔기 때문에 死者를 극진하게 厚葬하여 死者에 대한 尊敬과 推仰을 表示하였다¹⁾. 朝鮮時代에 이르러 儒敎는 喪禮를 통해 人間의 性情과 人間으로서의 道理인 仁孝를 극진히 함

으로써 宗教性을 表現하고 있으며²⁻⁴⁾, 生時에 지극하게 섬기는 것은 물론 死後에도 계속 禮로써 報恩을 行하는 倫理性도 내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同一血族에 속하는 生者と 死者를 합친 全一體로서의 家族에 대한 共同體의 觀念을 濃厚하게 지니고 있어서 祖上에 대한 崇拜가 두터웠기 때문에, 畏敬의 禮로서의 喪禮⁵⁾는 民族의 生死觀, 禮儀觀, 來世觀, 靈魂觀, 祖上崇拜를 잘 나타내는 儀式이다⁶⁻¹³⁾. 그런데 儀禮의 과정으로써 喪禮나 喪服에 관한 논의는 많으나, 死者에 대한 최대의 예의의 표현이고 生者의 정성과 조심스런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옷인 綵衣와 喪禮文化에 관한 研究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 孝와 禮儀의 부재현상이 만연하고 의례에 대한 실천과 시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喪禮도 점차 간소화되어 매우 간단하게 되고 있으므로¹⁴⁾, 喪

*이 논문은 2003학년도 건양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Corresponding author: Yoo, Kwan-Soon

E-mail: yoosim@konyang.ac.kr

禮文化에 대한 전반적인 조명을 통한 禮의 문화정립과 체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발표된 여러 논의를 바탕으로¹⁵⁻¹⁸⁾, 공주, 논산, 부여,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상례문화에 관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올바른 喪禮文化의 틀을 마련하고, 기초자료 제공 및 체계화하는데 연구의 의의 및 목적을 둔다.

2. 연구내용과 범위

연구내용과 범위에서 현지 면담 조사 자료는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충남의 논산시·공주시·부여군과 대전광역시 등의 네 지역을 면담 조사대상지역으로 한정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상례의 과정은 방대하므로, 여러 과정 중 돌아가신 분을 중심으로 한 수의에 대한 여러 측면과 현대 상례에 관련된 내용으로 연구의 내용과 범위를 국한하여 고찰하였다.

수의와 관련해서는 수의의 준비시기 및 이유, 제작, 보관, 옷감과 색, 명칭 등을 고찰하고, 현대 상례와 관련해서는 의례과정으로서의 상례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인식, 효 사상, 화장 장례운동, 납골당 등에 관한 생각 및 현대의 상복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3.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과 선행 민속관련 연구자료, 논문자료, 인터넷 검색자료 및 현지면담조사자료, 질문지를 통하여 자유롭게 쓴 자기 보고서 방법 등의 자료 조사를 통하여 현대 상례문화의 여러 면을 실증적으로 분석 고찰하고자 하며, 현지면담 조사 자료의 조사 시기는 2003년 5월~2003년 10월까지의 기간이다.

II. 상례문화에 대한 일반적 개념

1. 상례의 의미

喪禮는 사람의 죽음을 맞아 주검을 묻고, 근친들이 슬픔으로 근신하는 기간의 의식절차를 정한 예절로¹⁹⁾, 인간의 죽음을 놓고 사회적으로 규정된 의례관행의 총체로서 그 종족이나 문화권이 지닌 인생관, 영혼관, 타계관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²⁰⁾. 우리의 전통 의례 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정중하며 그 절차가 까다롭고 논란이 많은 것이 상례이다²¹⁾. 개인적으로

보면 통과의례의 하나이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死者로 인하여 간극이 생긴 공동체가 다시 안정 상황을 되찾는데 의의가 있다. 죽은 이의 자손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은혜를 마음에 새겨 근본에 보답하는 자세로 근신하며 기다린다. 모든 절차는 경제적인 여건과 생업의 사정에 따라 결정하되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2. 상례를 통해 본 죽음에 대한 인식과 효 사상

喪禮文化(-죽음의 문화)는 生活文化(-삶의 문화)와 대칭되는 중요한 문화이다. 생활문화가 건강하려면 상례문화가 건강해야 한다. 생활문화는 삶의 문화이며 상례문화는 죽음의 문화이다. 삶의 문화와 죽음의 문화는 서로 뗄 수 없고 소홀히 할 수 없는 균형질서이자 균형원리이다. 이것이 자연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다.

지금의 세대는 삶의 문화에만 치중되어 있고, 죽음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삶의 문화를 중요시하는 만큼 죽음의 문화도 그만큼 철저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대인에게는 죽음을 보는 지혜·너그러움·인식 그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죽음이 삶의 단순한 반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하며, 陰陽의 틀처럼 공존·균형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²²⁾. <說文解字>에서는 喪이라는 글자는 “哭”과 “亡”의 會意字라고 하였다. “亡”은 “逃”의 의미로서 “死”의 의미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상의 죽음을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그 사실을 슬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글자의 의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로부터 죽음의 의미를 “다른 곳으로 떠나가다[逃]”의 의미로 이해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離別을 의미하는 동시에 언젠가는 다시 만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계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죽음을 하나의 通過儀禮로 맞이하게 된 것이고 喪禮가 바로 그것이다²³⁾. 죽음을 인간개체의 소멸이나 전멸로 보지 않고 다른 세계, 곧 저승으로의 이행으로 보고 있으며 죽음의 상태를 두고 ‘돌아가다’라고 하며 마치 지상의 어느 모퉁이로 돌아간 것처럼 말하는 것이라든지, 망자를 데리고 갈 저승사자를 위하여 차린 사자상에 췌신을 놓는다는 사실에서 그런 사정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의 죽음을 개체의 소멸로 보지 않고 수평적인 공간의 어느 지점으로 옮겨가는 사고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다²⁴⁻²⁵⁾.

<표 1> 조사지역 및 면담대상자의 인적사항

(2003년 기준)

번호	조사 지역	성명	성별	나이	거주지	번호	조사 지역	성명	성별	나이	거주지
1	논산	신재이	남	51	충남 논산시 두마면	39	대전	이순이	여	47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2		강희석	"	47	충남 논산시 양촌면	40		김계순	"	49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3		이보건	"	60	충남 논산시 상월면	41		하화자	"	62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4		조의영	"	50	충남 논산시 연무읍	42		이정자	"	50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2동
5		한광수	"	52	충남 논산시 강경읍	43		김순옥	"	46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6		김영균	"	61	충남 논산시 강산동	44		김복숙	"	46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7		김순길	"	61	충남 논산시 내동	45		이금자	"	33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8		권용중	"	88	충남 논산시 노성면	46		유영란	"	48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1동
9		김용배	"	62	충남 논산시 노성면	47		이정숙	"	50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10		권창원	"	55	충남 논산시 노성면	48		공주	서갑석	남	79
11		안병옥	여	45	충남 논산시 두마면	49	박태호		"	71	충남 공주시 정안면
12		정진순	"	43	충남 논산시 양촌면	50	안병석		"	68	충남 공주시 장기면
13		안명순	"	39	충남 논산시 광석면	51	강대식		"	64	충남 공주시 의당면
14		이선영	"	50	충남 논산시 광석면	52	이중윤		"	67	충남 공주시 옥룡동
15		강은숙	"	56	충남 논산시 상월면	53	정원영		"	52	충남 공주시 옥룡동
16		김진화	"	52	충남 논산시 화지동	54	김상근		"	57	충남 공주시 옥룡동
17		김혜경	"	50	충남 논산시 내동	55	김진연		"	51	충남 공주시 옥룡동
18		김영복	"	50	충남 논산시 연무읍	56	강점순		여	73	충남 공주시 계룡면
19		한만기	"	38	충남 논산시 강경읍	57	노수경		"	55	충남 공주시 우성면
20		강미숙	"	43	충남 논산시 화지동	58	정입분		"	57	충남 공주시 장기면
21		안명자	"	49	충남 논산시 강경읍	59	김상희		"	71	충남 공주시 이인면
22		윤지숙	"	41	충남 논산시 강경읍	60	백재후		"	56	충남 공주시 신관동
23		이재순	"	64	충남 논산시 노성면	61	이영자		"	51	충남 공주시 증동
24		김봉배	"	81	충남 논산시 노성면	62	황순애		"	79	충남 공주시 옥룡동
25		이영애	"	52	충남 논산시 노성면	63	오예희		"	53	충남 공주시 반죽동
26		박수봉	"	91	충남 논산시 노성면	64	허인경		"	57	충남 공주시 반죽동
27		서봉례	"	61	충남 논산시 노성면	65	구숙희		"	68	충남 공주시 사곡면
28	대전	윤재익	남	84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66	황영자	"	53	충남 공주시 옥룡동	
29		윤종석	"	52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67	정홍훈	"	70	충남 공주시 반포면	
30		한태석	"	47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2동	68	김인희	"	51	충남 공주시 반포면	
31		이효선	"	54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69	부여	이병호	남	54	충남 부여군 홍산면
32		이백운	"	47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70		김상준	"	46	충남 부여군 홍산면
33		채수형	"	52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2동	71		황범순	"	48	충남 부여군 세도면
34		홍성우	"	62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72		윤진석	"	53	충남 부여군 석성면
35		배태현	"	48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73		윤선영	여	48	충남 부여군 석성면
36		박정만	"	48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74		조종연	"	52	충남 부여군 홍산면
37		이숙영	여	45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2동	75		장월순	"	72	충남 부여군 홍산면
38		김명순	"	51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孔子는 喪禮를 “生の 마지막을 신중히 맞이하고, 돌아가신 부모를 추모하는 [慎終追遠]의례”의 하나로써 중요하게 여겼고, 三年喪을 天下의 通喪이라고 하여서 孝와 관련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三年喪을 孝와 관련시킴으로써 喪禮를 儒敎를 상징하는 儀禮의 위치에 固定시켰다.

孝는 단순히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도리 이상의 것, 곧 德과 敎화의 근본이자 인간 행위의 중요한 德目의 하나이다. 그런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孝가 生存 時에만 강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돌아가신 부모를 살아 계시는 것처럼 받드는 것을 실질적인 道德律로 삼았고, 조상에 대한 孝를 追孝(추효)라 하여, 조상숭배의 다른 표현으로 살아 계실 때의 부모에 대한 孝의 연장을 의미하고, 이의 구체적 행위를 祭祀라고 하였다.

대체로 상례는 죽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 있다. “돌아가신 부모 섬기기를 살아 계신 것처럼 한다” 고 하였듯이 살아 계시거나 돌아 가셨거나 일관된 태도로 부모를 섬기는 孝思가 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喪紀 자체가 번거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깊은 연구와 신중한 이행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孝를 百行의 根本으로 간주하는 儒敎의 입장 때문에 喪禮는 중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喪禮는 조선시대는 물론 오늘날에도 인생의 마지막에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儀禮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때문에 현재 실행되는 상례에서는 과거 儒敎文化를 전승한 내용을 다른 의례에 비해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喪禮文化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전통적 가치 개념인 “孝”와 “禮”사상마저도 도전을 받고 있다. 따

라서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적합한 형태의 상례문화의 정립을 통해 “孝”와 “禮”의 가치를 계승해 나가야 할 것이다.

III. 상례문화의 실제

1. 수의 준비여부, 준비 희망시기 및 이유

1) 수의 준비자의 수의 준비시기 및 준비 이유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면담대상자 75명 중에서 수의 준비자는 10.7%였으며, <표 3>에서와 같이 수의 준비 시기는 연령에 따라 다양하였고, 이 중에서 87.5%가 미리 준비하면 장수한다는 믿음 때문에 미리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수의 미준비자의 준비 희망시기 및 준비 이유

대부분이 수의를 아직 준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의 준비 시 할 의견이나 지금까지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위주로 고찰하였다. 면담대상자 75명 중 수의 미준비자 67명에 대한 준비 희망시기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표 4>와 같이 준비 희망 시기는 70세 이후가 4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수의의 준비시기가 회갑이 지나면 날을 정해서 준비한다는 믿음에서²⁷⁾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준비시기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60세 이후의 준비와 나이에 관계없이 윤년이나 윤달에 준비 한다는 경우도 20.9%를 나타내었다.

준비이유로는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미리 준비하면 만수무강을 기원할 수 있다는 믿음이 53.7%로 지배적이었고, 자손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37.3%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수의의 제작

수의의 제작은 <표 6>에서와 같이 누구에게 의뢰할 것인가에 대하여, 전문점(喪布商會)을 통한 제작이

<표 2> 면담대상자의 수의 준비여부

구분	수의 준비자	수의 미준비자	합계
빈도(명)	8	67	75
백분율(%)	10.7	89.3	100

<표 3> 수의 준비자의 수의 준비시기 및 준비 이유

구분	50대	60대	70대	80대	합계
빈도(명)	1	2	3	2	8
백분율(%)	12.5	25	37.5	25	100
준비 이유	* 장수를 기원 (1명)	* 다같이 준비할 기회가 있어서 (1명) * 장수를 기원 (1명)	* 장수를 기원 (3명)	* 장수를 기원 (2명)	

<표 4> 수의미준비자의 준비 희망시기

구분	60세 이후	65세 이후	70세 이후	윤년(달)	건강이 나빠지면	합계
빈도(명)	6	14	31	14	2	67
백분율(%)	8.9	20.9	46.3	20.9	3.0	100

<표 5> 수의 미소지자의 준비 이유

내용	빈도(명)	백분율(%)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해서	36	53.7
자손을 편하게 해주기위해서	25	37.3
가정평화를 위해서	3	4.5
수의에 대한 현실감이 생길 것 같아서	2	3.0
만약의 일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1	1.5
합계	67	100

<표 6> 수의의 제작자

구분	전문점 (상포상회)	장수한 노인	이웃사람	잘 아는 사람	합계
빈도(명)	48	15	10	2	75
백분율(%)	64.0	20.0	13.3	2.7	100

64.0%로 가장 많았고, 장수한 노인(20.0%), 또는 이웃사람들(13.3%)에게 손수 제작을 의뢰한다고 하였다. 수의 제작 시 특별히 행하는 일들로는 동네 어른들과 맛있는 음식과 찰밥을 해서 나눠먹고, 종교의례를 엄숙히 거행하기도 하고, 팔죽을 쑤어 먹기도 한다.

4) 수의의 보관

수의의 보관은 <표 7>에서와 같이 오동나무 함에 의 보관이 42.7%로 가장 많고, 그 외에 종이박스에 보관(29.3%)하거나, 높은 장소에 보관(14.7%)하거나, 옷장 안(9.3%)이나 보자기에 싸서 정성껏 보관(4.0%)한다.

수의가 상하지 않도록 보관함에 집어넣는 것에는

<표 8>에서와 같이 좀약(46.7%)이 가장 많았고, 담배 잎(25.3%)을 넣기도 하고, 수분을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 신문지나 창호지, 한지 등의 종이(21.3%)를 집어넣거나, 숯(6.7%)을 넣기도 하였다.

5) 수의의 옷감 및 색

수의의 옷감으로는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삼베(77.3%)가 가장 우세하였고, 그 외에 명주(10.7%), 모시(4.0%), 비단(2.7%), 인조(2.7%), 광목(1.3%), 한지(1.3%) 등의 순이었다. 수의의 색으로는 옷감 그대로의 소재색이 지배적이었다(96%).

6) 수의의 명칭

<표 7> 수의의 보관

구분	오동나무함	종이박스	높은 장소	옷장	보자기	합계
빈도(명)	32	22	11	7	3	75
백분율(%)	42.7	29.3	14.7	9.3	4.0	100

<표 8> 수의 보관함에 집어넣는 물건

구분	좀약 (나프탈렌)	담배잎	종이 (신문지, 창호지, 한지)	숯	합계
빈도(명)	35	19	16	5	75
백분율(%)	46.7	25.3	21.3	6.7	100

<표 9> 수의의 옷감

구분	삼베	명주	모시	비단	인조	광목	한지	합계
빈도(명)	58	8	3	2	2	1	1	75
백분율(%)	77.3	10.7	4.0	2.7	2.7	1.3	1.3	100

수의와 관련된 명칭에 있어서 면담자들이 주로 응답한 벽목, 악수, 오냥, 엽포 등을 보면, <표 10>에서와 같이 얼굴 가리개인 벽목(幘目)은 면모, 면보, 면포, 면막 등으로 칭하였고, 손싸개인 악수(攄手)는 수막, 맹인장갑, 손장갑 등으로도 칭하였으며, 손발톱 주머니인 五囊은 주머니, 오냥 등으로 칭하였고, 斂布는 장단포, 소대, 매장포 등으로 칭하여졌다. 이를 <표 10>의 타 시도 지역과 비교해보면²⁸⁾, 벽목은 면보, 면막의 명칭이, 악수는 맹인장갑, 수막, 손장갑 등의 명칭이, 엽포는 장단포, 소대의 명칭이 다름을 알 수 있었으며, 같은 의미라도 지역에 따라 독특하게 불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喪服은 喪을 당했을 때 가족 친지가 입는 儀禮服으로서, 예전에는 服親의 범위에 따라 착용하는 喪服의 종류도 다르고, 다양하였으나, 現代의 喪服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9년에 제정된 건전가정의례준칙 제 4장 제 14조를 보면,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되, 한복일 경우에는 백색 복장, 양복일 경우에는 흑색 복장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²⁹⁾.

2. 현대 상복 관련

면담 조사의 결과에서도 <표 11>에서와 같이, 現代 喪服으로는 男子는 검정색 양복에 삼베로 만든 건을 착용하거나(45.3%), 검정색 양복에 삼베 두루마기를 착용하였으며(33.3%), 女子는 흰색 치마·저고리(41.3%)나 검정색 치마·저고리(37.3%)의 착용이 지배적이었다.

<표 10> 타 지역과의 수의의 명칭 비교

구분	본 조사지역	타 시도 지역
벽목	면모, 면보, 면포, 면막	면막수, 명모, 맨모, 명목, 면모 면포, 낫보, 낫모, 드랑다리, 명막수
악수	수막, 맹인장갑, 손장갑	손싸개
오냥	주머니, 오냥	조발랑, 주머니, 오냥, 손뚝싸개, 발뚝싸개, 조발랭이, 조발영
엽포	장단포, 소대, 매장포	장매, 맏배, 매장포, 매장배, 맥시배, 장배, 장포, 매장

<표 11> 상복의 종류

구분	종류	빈도(명)	백분율(%)
남자	검정색 양복과 삼베 건	34	45.3
	검정양복과 삼베 두루마기	25	33.3
	흰색 바지·저고리와 전통상복	7	9.3
	검정색 양복과 전통상복	4	5.4
	무응답	5	6.7
	합계	75	100
여자	흰색 치마·저고리	31	41.3
	검정색 치마·저고리	28	37.3
	검정색 양장	5	6.7
	전통상복	3	4.0
	무응답	8	10.7
	합계	75	100

이 외에 남자의 경우 흰색 바지·저고리에 전통상복을 입는 경우(9.3%) 또는 검정색 양복에 전통 상복을 입는 경우(5.4%)가 있었고, 여자의 경우 흰색이나 검정색 치마 저고리 외에 때로는 검정색 양장(6.7%)을 입기도 하며, 기타 평소에 준비해둔 전통상복(4.0%)을 입기도 하였다³⁰⁻³¹⁾. 남자는 왼쪽 가슴에 삼베로 만든 나비 모양의 喪章이나 흰 꽃을 달고, 여자는 흰 리본을 머리에 꽂는다³²⁾. 신발은 검정색 양복에는 검정색 구두를 신고, 흰색 치마·저고리에는 흰색 고무신을 신는다. 흰색 상복에는 검정색 喪章을, 검정색 상복에는 흰색 喪章을 다는 것이 좋다³³⁾.

3. 화장과 상례관련 인식

최근 喪禮文化에 많은 의식과 제도의 변화가 일어나, 3년에 걸친 상례절차가 100일이면 끝나고 埋葬 중심의 葬墓제도는 火葬으로 변하고 있고, 屍身의 부패를 방지하는 별도의 시설물이 있어 小斂, 大斂의 절차가 무의미해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³⁴⁾.

또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장묘문화개혁운동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생각된다. 각 나라별로 역사적, 종교적 배경에 따라 장묘제도가 다른데 우리나라는 수백 년에 걸쳐 매장문화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³⁵⁾.

현재 묘지가 매년 여의도의 1.5배씩 늘어나고, 국토에서 차지하는 묘지 비율은 전국토의 약 1%로서

이는 주거지역의 1/2, 공업지역의 약 3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매년 약 9 km²씩 잠식되어 가고 있는 묘지로 인해 서울은 2년, 수도권은 5년, 전국적으로는 8년 이내에 묘지 공급에 한계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국토개발의 저해요인, 환경파괴의 주요인이 되고 있고, 일부계층의 불법 호화분묘는 계층간의 위화감까지 조성시키고 있다. 자연재해로 자연환경 훼손과 유실도 빈번하며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수해는 98년도에만 전국적으로 약 9,400기에 이르고, 무연분묘 증가로 인한 국토잠식으로 충효사상이 혼미해 지는 현실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³⁶⁾. 가용 국토면적이 좁고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동안 정부는 물론 민간차원에서 노력이 없던 것은 아니었으나 전통과 관습의 높은 벽에 부딪혀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차에 몇몇 시민단체와 사회 각층의 지도자들의 화장선언으로 급속하게 화장 문화가 확산되어 (故)최종현 회장이 화장의 有志를 남기면서 매장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었다³⁷⁾.

실제로 국내 화장률은 1994년 20.5%를 기점으로, 2002년에는 화장률이 42.1%를 기록하고 있으며, 2-3년 후에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³⁸⁾.

또한 최근에는 산골장례(散骨葬禮)라는 장례방식이 서울시에 의해 제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화장 후에 납골 외의 방법, 즉, 나무와 꽃이 어우러진 수목공원을 만들어 그 곳에 유희(화장 분골재)를 안장(매장)

<표 12> 화장 장려운동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명)	백분율(%)	의견	빈도(명)	백분율(%)
찬성	44	58.7	국토환경과 산림 및 경치를 훼손시킴	31	70.5
			자손들이 관리에 편함	11	25.0
			본인이 원함	2	4.5
			합계	44	100
반대	22	29.3	효 사상에 근거한 제사가 불가능함	11	50.0
			화장이 너무 싫음	5	22.8
			화장해서 뿌리면 조상의 혼이 떠도는 것 같아서 싫음	2	9.1
			핵가족화 시대에 화장까지 하면 너무 삭막해짐	2	9.1
			화장한 조상이 없음	1	4.5
			이미 묘 자리를 준비하였음	1	4.5
기타	9	12.0	합계	22	100
			생각해 보지 않았음	8	88.9
합계	75	100	무응답	1	11.1
			합계	9	100

하고, 추모단을 설치하여 고인을 추모하는 방식으로, 공원기능의 유지를 위해서 비석이나 봉분 등은 설치할 수 없으며, 이미 葬事文化 선진국에서는 널리 행하여지는 장례방식이다³⁹⁾. 실제 면담조사결과에서도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장 장려운동에 대하여, 총 면담자의 58%가 화장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으며, 화장 찬성자의 70.5%가 산림훼손, 국토환경과 경치훼손 등을 이유로 화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 의견도 29%를 나타냈는데, 이유로는 효 사상에 근거한 제사가 불가능하기 때문(50.0%)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화장이 너무 싫거나(22.8%), 화장하여 뿌리면 조상의 혼이 떠도는 것 같아서 싫다는 의견(9.1%), 핵가족화 시대에 화장까지 하면 세상이 너무 삭막해서 싫다는 의견(9.1%), 이미 묘 자리를 준비해 놓았거나(4.5%) 화장한 조상이 없기 때문(4.5%)에 절대로 화장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납골당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면담대상자의 89.3%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여 화장 문화에 대한 의식의 확산을 엿볼 수 있었다.

장묘문화의 개혁은 궁극적으로 묘지를 쓰지 않음으로써 국토의 낭비를 줄이자는 것인데 그 전 단계로 화장을 꺼리는 국민들의 국민의식이 급선무라 하겠으며, 화장이 편리하고 깔끔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확충, 개선하고 보다 겸손한 장례문화를 유도해 나가는 노력을 함께 전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⁴⁰⁾.

전통은 한 민족의 사고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를 하루아침에, 또는 운동으로 바꾸기는 쉽지는 않다. 溫故而知新이란 말이 있듯이 전통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결과에 따라 현대에 수용하고, 변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때 전통의 계승과 전승은 물론 세계화에 대처할 수 있는 민족문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법령이나 방법, 제도의 개선, 그리고 무조건적인 운동보다는 그 민족이 가진 문화적 사고를 충분히 연구한 후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¹⁾. 이처럼 문화변동은 단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유구한 역사를 통해 집적된 사고는 단시간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사고와 연구를 바탕으로 현대에 어울리는 올바른 상례문화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때 우리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이루게 될 것이고, 진정한 상례문화의 기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IV. 결 론

상례문화 전반에 관한 조명을 통하여, 禮의 文化 정립과 체계화를 기함으로서 수의 및 상례문화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연구방법은 문헌과 선행 민속관련 연구자료, 논문자료, 인터넷 검색 자료 및 현지면담조사자료, 질문지를 통하여 자유롭게 쓴 자기 보고서 방법 등의 자료조사를 통하여 현대 상례문화의 여러 면을 실증적으로 분석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상례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인식과 孝 사상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2. 수의와 관련한 조사에서는 준비시기로 70세 이후를 가장 선호하였고, 준비 이유로는 미리 준비하면 만수무강한다는 믿을 때문이었다.

수의의 제작은 전문점을 통한 제작이 선호도가 높았다. 수의의 보관은 오동나무 함을 선호하였고, 보관 시에 상하지 않도록 나프탈린이나 담배 잎을 집어넣었다.

수의의 옷감으로는 삼베가 으뜸이었고, 색은 소재이 지배적이었다.

명칭은 품목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3. 현대 상복으로는 융통성 있게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착용하고 있었다.

4. 화장과 장례에 대한 인식도 충분한 사고와 연구를 바탕으로 할 때, 현대에 어울리는 올바른 상례문화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의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전통의 계승과 전승을 위한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을 바탕으로, 진정한 상례문화의 정립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며, 면담조사에 있어서도 지역선정에 한계가 있었고, 면담자들의 상례문화에 대한 의식부재 현상으로 면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향후 여러 지역과 여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연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여러 면들도 비교 분석과 심층화 작업으로 상례문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李鍾恒(1975). 우리 民族의 喪禮와 祭祀에 관한 研究. 國民大論文集(人文科學篇). p. 9, pp. 123-124, 132-134.
- 2) 崔基福(1979). 儒敎의 喪禮에 關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p. 30-31, 34.
- 3)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全南篇)(1968).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pp. 134-135.

- 4) 金聖培(1980). 韓國의 民俗. 서울: 집문당, p. 166.
- 5) 竹內照夫(昭和50). 四書三經. 日本: 平凡社, p. 53.
- 6) 趙孝順(1988). 韓國服飾風俗史 研究. 서울: 一志社, p. 276, 301.
- 7) 李必英(1987). 韓國 古代의 葬禮儀式 研究. 韓南大 論文集(人文科學篇). p. 17, 257.
- 8) 會寧郡誌(1978). 會寧郡民會. p. 193.
- 9) 朴桂弘(1989). 韓國 民俗學 概論. 서울: 형설출판사, p. 147.
- 10) 何聯奎(中華民國 72). 中國禮俗研究. 臺灣: 中華書局, p. 85.
- 11) 李鍾恒(1975). '앞의 글'.
- 12) 石宙善(1975). 李朝 宮中 儀式 節次에 따르는 服飾制度에 관한 研究. 同大論叢. p. 5, 8.
- 13) 高福男(1981). 죽음-來世의 永生의 根源 回歸思想. 淑大新報 論壇.
- 14) 안명숙, 김용서(2001). 한국복식사. 서울: 예학사, p. 179.
- 15)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全南篇)(1968).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pp. 134-135.
- 16)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忠南篇)(1975).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p. 114.
- 17) 劉寬順(1990). 우리나라 襪衣에 관한 研究. 中央大學校 大學院博士學位論文. pp. 6-7.
- 18) 劉寬順(1995). 中國 襪衣의 文獻的 考察. 服飾, 25, pp. 105-107.
- 19) <http://www.lifewater.co.kr>. 2003. 12. 21.
- 20) <http://msr.or.kr/culturedata>. 2004. 1. 7.
- 21) <http://www.hyeongyeongbuk.es.kr>. 2004. 1. 14.
- 22) 김기덕(2002). 매장과 화장의 본질 - 아름다운 이별을 위하여 -. 생활개혁실천 협의회, p. 89.
- 23) 장철수(1988).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 서울: 고려원, p. 9.
- 24) <http://www.koreanfolk.org>. 2004. 1. 22.
- 25) 임재해(1996). 전통상례. 서울: 대원사, pp. 12-15.
- 26) <http://www.yejiwon.or.kr>. 2004. 1. 10.
- 27) 劉寬順(1990). '앞의 글', p. 127.
- 28) 劉寬順(1993). 現行 襪衣에 관한 研究(I). 服飾, 21, pp. 55-57.
- 29) <http://4444.st/2-16.htm>. 2004. 1. 16.
- 30) 남민이(2001). 현대 생활 속의 상장례. 서울: 학문사, p. 80.
- 31) <http://www.fta.or.kr>. 2004. 1. 31.
- 32) 劉頌玉(1998). 韓國服飾史. 서울: 修學社, pp. 328-329.
- 33) <http://napgolmyo.com.ne.kr>. 2004. 1.25.
- 34) <http://www.yejiwon.or.kr>. 2004. 1. 10.
- 35) 김상하(1999). 화장, 아름다운 선택 -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 생활개혁실천 협의회, p. 19.
- 36) <http://napgolmyo.com.ne.kr>. 2004. 1. 25.
- 37) 김상하(1999). '앞의 책', p. 19.
- 38) 국민일보, 2003. 9. 5.
- 39) <http://www.memorial-zone.or.kr>. 2003. 12. 27.
- 40) 김상하(1999). '앞의 책', p. 19.
- 41) 김시덕(2002). 올바른 상례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 아름다운 이별을 위하여 -. 생활 개혁 실천 협의회, p. 19.